

# 개요

국제이주동향: SOPEMI – 2003 년판

## Overview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OPEMI –2003 Edition**

## Korean translation

개요는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으로,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제이주동향 연간 보고서는 최근의 이주 활동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28 번째 발간물은 4 부분으로 나뉘져 있으며 이주와 관련된 주제 및 29 개 OECD 국가와 선택된 비회원국(발트국가, 불가리아, 루마니아)들의 특수 정보 통계를 같이 합류했다.

2003 년 보고서의 첫 부분은 2001-2002 년 동안 가장 뚜렷하게 주목됐던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첫 부분은 OECD 국가에서 이주 이동과 외국인 인구 변화를 관찰하고 (I.A), 두번째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이주자의 지위상태에 주목하며(I.B), 마지막 부분은 이민정책에 대해 간추려 설명한다(I.C).

일부 OECD 국가의 경제분위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90 년대 중반부터 2001 년까지 국제 이주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 왔다. 2002 년의 부분적 데이터를 참고할 때 조금의 둔화를 목격할 수 있으나 이 동향이 멈춰질 조짐은 안 보인다. 여러 OECD 국가에서의 노동 이주는 그 성격이 단기적 또는 영구적인 것을 떠나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보건과 교육 부문의 고급 인력자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가족결합 목적의 이주가 계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국자 부류에 속해 있다. 2002 년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몇 년 동안 고성장을 보였던 망명신청자 입국승인의 증가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 문제는 여러 유럽 OECD 국가(특히 이태리와 스페인) 인구통계학에 있어, 또한 인구 감소를 해소하는데 (독일의 사례)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화 증가 및 국적 취득의 원활화를 위해 채택된 조치는 수용국가에 정착하는 이민 및 그들의 가족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호주, 캐나다, 미국 및 뉴질랜드 같은 정착 국가들의 국세조사간 비교는 총인구에서 외국태생자 수의 증가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동향은 이민 근로자의 새로운 모집에 대한 일부 OECD 국가의 부활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노동시장의 지속되는 불균형은 이 동향의 일부분을 대변해 준다. 이주 이동 조정이 높은 우선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수 OECD 국가는 숙련 및 고숙력된 외국인근로자를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후 외국인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화하고 있다. 노동 이주에 관한 신규 법률 제정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고급인력자 외에도 특히 농업(미국, 호주, 스페인, 그리스), 건설, 노인 간호와 여타 기업 및 가계 서비스(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분야에 필요한 덜 숙련된 노동자 또한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 이동은 총이동에서 임시적 노동 이주의 증가를 통해 볼 수 있다(임시적 이주는 단기 허가, 계절적 일자리, 다국적 기업에서 단기적 임무, 인턴쉽 및 노동 휴가 등을 포함한다).

여러 OECD 국가의 2002 년 노동 인력에서 외국인 및 이주자들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민국가(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15%와 20% 사이의 비중을 보였다. 룩셈부르크(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43.2% 차지),

스위스(21.8%) 및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오스트리아(9.9%), 독일(8.9%), 벨기에(8.2%), 프랑스(6.2%) 등과 같은 여러 유럽 노동시장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02년에 대부분 OECD 국가의 외국인 및 이주자의 노동력 참여율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었으며 보통 이 참여율 차이는 여성일 때 그 폭이 더 넓다. 아울러 2002년의 외국인 및 이주자는 내국인 실업보다 더 높은 실업률 경향을 보였었다. 이 현상은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실업률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 여성 실업률은 프랑스에서 21%, 벨기에에는 17.8% 그리고 스페인은 17%를 기록했다.

고용의 부문적 분배를 볼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건설, 숙박 및 음식점 분야 그리고 가사일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즉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비율이 그들의 총 노동력 참여율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부문별 분배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8.5%를 넘는 외국인 노동이 농업을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광업, 제조업 및 에너지에서 24.5%를 차지하며, 포르투갈은 건설 분야에서 30%, 미국은 도매 및 소매 거래 분야에서 20%, 스페인에서 거의 16.5%는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에 종사, 핀란드는 교육부문에서 11%, 노르웨이는 보건 및 여타 지역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21%, 그리고 그리스는 가사 분야에서 17%를 보였다.

지난 10년간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움직임에 관한 분석 결과, 최근 경제성장 동안의 외국인 고용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용 문제는 경기순환적 쇼크에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부 하위 카테고리(특히 여성과 함께 청년 및 고령 근로자)는 취약성을 계속 띠고 있다. 따라서, 고용 상태의 일반적인 개선만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통합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

아울러,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최근 변화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추세 중에 OECD 국가는 일부분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을 당한 이후 전체적인 테러리즘 방지 명목하에 안전문제에 부응하면서 국경 및 국내에서의 감시를 강화하였으나, 불법 이민과 인간 착취 및 매매 거래하는 조직들 방지를 위해서 또한 이것이 실시되었다. 여러 OECD 국가(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고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른 국가(스위스)는 난민 신청의 절차 속도를 가속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는 난민 허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영국, 네덜란드).

새로운 진입자를 도우는데 있어 이주자의 노동시장에 통합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우선권에 위치해 있다. 이는 언어 실력 및 이주자의 직업훈련을 개선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강화시켰다. 일부 국가는 국적 취득에 있어 법률 개정에 관한 조치도 취했다. 다수 국가는 적용 절차를 완화시켰거나(룩셈부르크) 귀화 희망자들이 수용국의 언어 및 사회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식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한다(특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유럽연합에서는 여러 지휘방향이 국가들의 이민 정책을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제 3 국민에 대한 일치된 법적 제도의 채택과 관련돼 있으며 공동기득 법칙(Community patrimony)에 따라 2004 년의 10 개 신규 가입국에 또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외부 규정의 운영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포괄적인 계획에 통합되었는데, 이는 비자 정책 조화, 국경 감시 업무간의 정보 공존 및 개도국의 보다 광범위한 연계 형성을 위한 취지에 있다.

2003 년판 연간 보고서 국제이주동향은 최근 이주현상 발전에 관한 특수 주제에 집중한 2 장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 첫 주제는 국제 이주의 지역적 모습에 관련되어 있고 두번째 주제는 남아프리카 사례인 보건 전문가들의 국제 이동에 관계되어 있다.

여러 OECD 국가는 국제 이동의 지역적 모습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이주정책에 있어 지역 비중이 높아졌고 국제이주의 이익이 전 후배지에 확장될 수 있는 기대와 함께 대도시에서 외국인 및 이주자들의 노동시장과 사회의 전체적 통합에 있어 나타나는 잠재 효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 장은 이주의 지역적 모습에 관한 이슈들을 모두 논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그 목적은 “이주자는 어디서 사는가?” 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다. 지리학적 분배에 있어 현존하는 국제 격차는 수용국가에 입국했을 때 어디서 이주자가 살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영향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효하는 데이터 범위 안에서, 연구 결과는 다음의 이주자들의 체류 결정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i) 지역 특성(서비스 질, 쾌적함) 및 경제적 기회 등 목적국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 (ii) 친척 또는 같은 고향사람 존재 그리고 (iii) 입국 지점에 정착 및 수용국과 자국의 지리학적 근접에 정착.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출생지, 입국 이유, 이주할 때 연령, 체류 기간)과 함께 목적지역 특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특수 주제는 국제 이주에 의한 장점이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 하에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지역적 이주 계획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개발 정책과 이주정책 간의 연관성이 강조되었다. 지역 경제 발전과 국제 이주의 지역적 양상간의 서로 연결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따라서 만약 이주정책이 이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인다.

두 번째 특장은 남아프리카 사례에 의거하여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국제적 이동의 영향을 검토한다. 출처국의 부정적인 잠재영향의 감소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식별하고 이동에 따른 이익 분배를 도우는데 노력을 기울고 있다. 본 장은 남아프리카의 보건 노동자 경우 이와 같은 위험성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고급인력자의 국제적 이동은 90 년대에 상당한 상승을 보였다. 신 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직업에서 거의 현저한 상승을 보이던 것이 보건 전문가에게까지 보편화되었다. 특히 지난 15 년간 상당한 악화상태의 이주 균형을 보였던 남아프리카에서는 보건 전문가들의 국제적 이동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보건 전문가들의 국제적 이동의 결정요인은 대체로 고숙련 노동자의 그 것과 일치하는데, 이는 서로 밀고 당기는 (push and pull)요인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보건 근로자를 위한 보다 특수한 일부 양상 또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 양상은 본국에서의 비교 임금 및 보건 부문의 악화되고 있는 근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보건제도 문제에 있어 이민이 계속 악화요인이 되고 있지만 반드시 주요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인력자원 운영을 유도하고 제고시키는데 있어 보건 부문과 그 외의 정부정책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에 남아프리카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의 보류 및 외국인 고급 인력자를 위한 이주완화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건 부문에서 채택된 주요 개혁들을 살펴본다. 이는 i) 의무적인 사회공동 서비스 개입, ii) 직업훈련, iii) 임금을 포함한 개선된 근로 조건, 그리고 iv) 남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의 주요 목적지 국가와 보다 폭넓은 국제적 협력.

남아프리카 같은 특별한 경우와 여러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하면, 출처국의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보고서는 이주 및 개발원조 분야의 정책 일치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보건 전문가들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지속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동향 2003 년판의 마지막 부분은 29 개 OECD 회원국과 선택된 비회원국(발트국가, 불가리아, 루마니아)을 위한 최근의 이주 흐름 및 정책 발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통계에 뒷받침된 이 부분은 이주 및 이민 흐름과 함께 피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관한 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총인구에 외국인 또는 외국태생 인구의 비율 그리고 특수 국적, 연령, 성별 또는 합법적 입국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적용되는 국가에서의 귀화율도 공개되었다.

국가 보고서는 이주 정책에 있어 각국의 새로운 법률 및 개선된 조치를 선보이고 있다. 이 개선은 입국승인, 체류 및 외국인 적응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고서는 난민에 관한 법률, 피난민 권리, 귀화 및 불법 이주 등을 검토한다.

국가간의 이주제도 및 법률의 다양성은 현존 데이터간 비교를 어렵게 하는 이주 통계 차이점에서 목격되고 있다. 금년 보고서를 결론짓는 통계 부록은 데이터 비교를 제고시키고 이주 통계 산출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방법을 기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록 목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망명 신청자 및 귀화에 대한 행정 데이터와 함께 통계 스톡 및 흐름의 총데이터를 제공하고, 두번째 부분은 각 출처국 수준에 맞춘 분해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개요는, 영어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OPEMI - 2003 Edition*)와  
프랑스어 (*Tendances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SOPEMI - Edition*) 표제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2003, OECD

OECD 출판물과 개요는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Online Bookshop 홈페이지의 “Title search” 박스에서 “Overview”를  
입력하거나 해당 영어 표제를 입력하십시오.  
(개요는 영어 출판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본 개요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mail :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 Fax : +33 1 45 24 13 91



© OECD, 2003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